

## 韓國 大學教育의 危機

朴 奉 穆  
(嶺南大 教育學科)

急變하는 現代社會 속에서 大學이 主導勢力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비해서 그 能率化와 現代化에서 뒤지고 있다. 大學의 위기는 높은 道德律이 지배하는 일관된 教育哲學의 理念의 不在와 實利에만 몰두하여 教育의 質을 생각하지 않는 大學의 量的 膨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간 한국 대학은 사회적 요청에 따라 量的인 많은 발전을 했으나 質的 均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大學教育의 性格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학들이 안고 있는 危機가 무엇인가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 1. 大學教育의 性格

每年 3월에 많은 젊은이들이 큰 꿈을 안고 대학의 문을 들어선다. 그런데 每年 2월에는 그들이 가졌던 꿈에 회의를 느끼면서 대학의 문을 등지고 사회로 향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본다. 이들은 왜 그들이 大學에 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지 않고 이 문을 들어서는 것 같다.

물론 많은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대학교육을 받는데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목적이 과연 얼마나 적중된 것인지 모르겠다. 오늘날의 대학은 옛날 우리들의 아버지들이나 할아버지

들이 다니던 때와 같이 少數의 精銳分子만이 갈 수 있는 특권적인 장소도 아니고, 자랑의 대상도 아니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대중화되었고 고등학교를 나오는 거의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에게는 유행적인 성격마저 띠고 있다.

대학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졸업 후의 당장의 보수가 主目的이라면 오늘날과 같은 취업난이 심한 시대에 있어서 졸업 후의 실적은 農牛를 팔아 子女의 등록금을 마련한 농촌의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줄 것이다. 사람들이 대학교육의 목적을 너무 현실화하여 實利的인 가치로서만 생각하고 대학교육이 가져야 할 이상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때 대학은 無用之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난날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大學亡國論이 나올 수도 있다.

大學을 특권의식에서 계급적인 자만심의 만족의 도구로 생각하거나 소수만을 위한 특권의식

의 시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대학은 하나의 특권이 아니고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권리로 생각해야 한다. 오늘의 대학은 精銳의 인 지계층의 양성이 아니고 中間階級の 형성을 통한 사회적인 民主的 指導力의 確立으로 이해해야 한다. 대학교육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既成職場을 메꾸으로써 직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직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實利에만 흐르고, 교수들은 安易한 타성에 젖어 時代的 變化를 등지고 계속되는 담보 상태에서 헤어날지 못한 채 구태의연하게 남아 있고, 학생들은 현실 위주에서 꿈을 저버려 대학의 理想을 잃어버릴 때 그 대학은 存在意味가 희미해진다.

물론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효율을 생각해야 하고, 교수의 신분은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은 대학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몸에 지녀 장래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自我實現을 통해 個人的 成功을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대학은 젊은이들이 모인 장소인 만큼 거기에는 생활의 낭만도 있어야 한다.

大學의 定義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그 見解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학문의 연구(research)와 그 연구를 위해서 가르치고(teaching) 배우고(learning), 그 연구를 통해서 사회와 국가발전에 봉사하며, 그리고 그 연구를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指導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人間關係가 성립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한다.

우리는 歷史的으로 大學의 전통을 학문연구의 정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옛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카데미(Academy)에는 졸업장도 자격증도 없었는데도, 진리를 찾는 열렬한 학도들이 實用性과는 거리가 먼 法學, 修辭學, 哲學 등을 토론하면서 그들의 위대한 스승의 지도 아래 수 년씩을 학문연구에 몰두했던 것이다. 현대인이 만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학자 밑에서 몇 개월만 배웠다면 수료증과 이수증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다. 오늘날 대학에는 그저 적당히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C' 학점 이상만 취득하여 세월을 채우고 졸업

장과 자격증을 얻는 것이 오히려 主目的인 것처럼 살아가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中世紀 大學의 榮光은 學問研究에 그 초점이 놓여 있었다. 中世의 대학생들은 때로는 敎授 집에서 일을 하고 때로는 걸식까지 하면서도 학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초기 볼로니아(Bologna)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교과서를 직접 손으로 옮겨 적어 사용했다. 아벨라트(Abelard)의 강의는 독창적이고 논쟁점을 가진 신선하고도 유모어를 가진 名講義였다. 그래서 그의 말을 양식삼아 광야에서 움막을 치고 굶주리기까지 하면서 며칠씩 그의 강의에 참석한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대학 캠퍼스의 실정을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문을 위한 정열보다 대학생활을 남녀 학생의 미팅(date)과 함께 시작하여 클럽 활동으로 꽃을 피운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의 잠지실과 참고열람실은 한산해도 대도시의 번화가는 대학생들로 흥수를 이루고 다방가는 이들 젊은 세대로 만원이다.

대학 캠퍼스의 낭만도 또한 대학생활의 클럽 활동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옛 대학의 전통과 진리를 추구하는 최고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이상을 되찾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뜻에서 대학은 상아탑이 되어야 한다.

或者是 現代의 大學은 더 이상 孤島의 象牙塔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社會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단순히 대중사회에 봉사하는 서비스센터는 아니다. 대학은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先驅者로서 사고의 저장소(think-tank), 또는 지식의 제조장(knowledge factory)으로서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산학협동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사회의 고급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학을 마치 레크리에이션 센터나 사교장처럼 착각하여 우왕좌왕하며 떠도는 무리들을 바로잡아 학문연구를 中心으로 어떠한 分野에서라도 4年(학사과정), 6年(석사과정) 또는 8年(박사과정)간 自己自身을 바칠 수 있는 곳을 찾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어떤 학생은 전공

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研究에 흥미를 잃었다고 한다. 물론 전공이 적성에 맞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전공이 꼭 맞지 않다지만 사실은 自己自身이 완전히 그 分野에 빠져보지 못한 탓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大學이 象牙塔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모든 대학의 교육내용이 學問 中心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現代의 大學은 순수한 이론적 학문(academic disciplines)의 學科나 大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문직업적 대학(professional schools)을 포함한 서로 다른 성격의 교육내용과 목적을 가진 종합된 대학(multiversit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大學의 象牙塔의 성격이란 교육내용 면에서보다 오히려 學問하는 자세에 더 많이 관련된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校門을 나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기대에 회의를 느끼면서 사회로 나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즉 그들이 대학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기대를 하였거나, 아니면 대학이 그들이 요구하는 질이 높은 敎授와 施設을 통한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였거나일 것이다. 또는 그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정열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획득하는 학생 본연의 자세에 不誠實하여 社會的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社會的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이들의 要求가 充足되지 못했거나이다.

하여튼 이같은 결과는 학생 個人的으로는 不幸한 일이고 사회와 국가적으로는 낭비를 초래하고 교육적으로는 하나의 危機를 자아낸다.

1981年 8月 美國 文敎長官인 벨(Terrel H. Bell)에 의해서 위촉된 18人으로 구성된 國家敎育振興委員會가 미국 교육을 진단한 결과 작성한 文敎部에의 答申書와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는 미국 교육의 국제적 學力競爭力의 弱化和 敎育的 質의 低下를 들어 미국 교육의 위기를 논했다. 그리고 교육의 위기는 結果的으로 미국의 경제, 정치, 사회, 국방 등의 모든 部門의 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敎育的 質의 低下가 바로 國家的 運命에 危機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最近 日本도 中曾根 首相의 요청에 따라 臨時

敎育審議委員會가 조직되고 日本 敎育을 진단하여 敎育改革을 위한 答申書를 내도록 되어 있다. 韓國의 경우 國家의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우리 교육의 危機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II. 韓國 大學敎育의 危機

최근 文敎政策은 어느 점에서는 아직도 制限的인기는 하지만 大學에 대하여 많은 自律을 부여해 주고 있다. 學生이나 敎授나 一般市民들까지 大學에 부여되는 自律을 다 같이 환영하는 바이다. 본래 大學은 眞理를 탐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문연구에 自由가 없이는 大學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第二次大戰 당시 獨逸敗亡의 큰 原因 중의 하나가 學者들로부터 學問研究의 自由를 박탈한 것이라고 한다. 나찌스 정권하의 위대한 과학자들, 예컨대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自由世界로 망명했던 것이다. 모든 진리의 탐구 결과가 반드시 당시 집권자나 정부의 구미에 一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진리의 발견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大學의 自律이 주어지면 大學의 學問研究는 활발하고 生産的인 大學이 될 것인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大學의 危機는 外的인 勢力에 의한 간섭 이상으로 內的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토인비가 그의 「역사연구」(*The Study of History*)에서 文化는 外的인 박해나 강요에 의해서 소멸되기보다는 오히려 內面的으로 生氣를 잃고 안에서부터의 挑戰의 힘을 상실할 때 더욱 위험한 운명에 부닥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우리가 大學의 위기를 논할 때 大學 밖에서 주어지는 不當한 간섭 및 압력과 같은 外的인 要因과 大學 自體 안에서 발견되는 無氣力, 惰性, 浪費 등의 內的인 要因을 아울러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사람들은 大學의 發展을 저해하는 外的인 要因에는 민감하면서도 內的인 要因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傾向이 있다.

筆者는 한국 大學의 危機를 주로 大學敎育의

內的인 면에서의 分析을 통해, 忘却해 버리기 쉬운 大學教育의 위기 의식을 깨우침으로써 大學自體의 自覺運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大學이 어떠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는 대학 자체의 존재 여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大學으로서 妥當한 教育機能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大學은 存在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기능이 죽어버린 大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大學에 재학하는 學生에게 대해서는 하나의 不正을 감행하는 것이고 社會에 대해서는 浪費를 조장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大學危機의 內的인 要因으로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급격히 變化하는 社會속에서 이에 수용하지 못하고 適合性和 均衡을 상실한 社會 변화의 수용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또 變化를 主導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담당치 못함으로써 不安과 無秩序 속에서 올바른 方向을 찾지 못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前者와는 대조적으로 大學이 先驅者가 아니라 오히려 變化를 동지고, 保守主義者로서 答보 상태에서 安逸만을 일삼는 옛 특권이나 身分에 執着하는 것이다.

이상에 비추어 大學教育의 病이 무엇인가를 具體的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로 한국의 많은 대학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경영을 위한 철학은 있되, 교육철학이 결여되어 있다. 大學마다 형식화된 教育理念은 設定되어 있되, 一貫된 哲學에 충실하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實利에 따라 교육이 행해진다. 大學에 따라서는 學科를 신설할 때도 경영상의 관심이 위주이다. 그래서 학생수 增加에 대한 考慮는 교수나 시설의 확보, 그리고 社會의 요청과 같은 教育的 考慮에 우선한다. 그래서 大學政策의 決定이나 運營에 있어서 道德的 原理에 따른 善惡의 判斷에서 보다는 實利의 표준에서 본 損得이 표준이 된다.

둘째로 量과 質의 不均衡에 의한 教育的 質의 低下이다. 解放前까지 단 하나밖에 없었던 大學이 1985學年度에는 單科大學 55개, 종합대학 45개, 합해서 100個校에 졸업정원 165,780명이 된다. 入學定員을 平均 115%로 계산하면 4年制大學의 4년까지의 총 학생정원은 762,588명이 되

는 셈이다.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지원율에 비하면 약 3.5:1이 되니, 앞으로도 대학정원의 增加는 不可避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같은 양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교육의 질적 저하이다. 首都圈 人口抑止策과 地方大學 育成策에 따라 地方大學의 學生人口가 急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수반한 교수의 확보와 施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教育工學的인 視聽 設施도 안 된 大型敎室에서, 뒷받침이 될 助教 制度의 확립도 없이 몇 백명을 상대로 하는 수업의 진행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세째로 敎授面에서 본 大學教育의 危機이다. 量的 面에서 韓國 大學은 크게 성장했고, 制度面에서는 日帝의 武裝解除 이후 우리 政府 樹立時까지 軍政을 펴고 있었던 美國의 영향을 받아 당시 우리로서는 새로운 美國式의 4年制 大學 制度를 채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式 敎育 아래에서 다년간 익숙해 온 많은 敎授들은 敎育의 內容이나 方法에 있어서 옛 習慣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第2次大戰 이후 약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社會的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敎育方法面에서도 科學的인 보조기구들의 발달이나 여러 條件의 變化는 학생을 가르치는 內容과 方法面에서도 새로운 挑戰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이같은 方法을 전달해 준 日本이나 歐美社會 自體들도 이같은 變化에 민감한데, 우리만이 특히 人文·社會系 敎授들의 敎授方法에는 별다른 變化가 없다.

최근 先進國에서 敎育을 받고 돌아온 비교적 젊은 교수들이 우리 大學社會에도 여기저기 끼어들고 새로운 敎育風土 造成을 위한 몸부림이 보이는 것 같으나 전통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多數를 차지하는 교수들의 영향은 大學敎育에 있어서 支配的인 勢力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新世代에 속하는 30代前後의 新進敎授라고 하더라도 舊世代에 속하는 그들 스승으로부터 받은 교수방법은 그대로 傳授되어 愛用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옛 교육의 方式은 그 당시 社會에 있어서 存在價値를 지니고 있었고, 또한 공헌한 바도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옛 方式 그 自體를 타하는

것이 아니라 약 半世紀를 지나면서 옛 방식에 크게 도전이 없는 大學教授들의 安逸主義와 惰性에 젖은 保守性이 하나의 教育危機를 內包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째로 大學社會의 自由의 亂用과 知性的 鈍化가 문제이다. 前述된 바와 같이 大學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本質적으로 어느 기관보다도 더 自由가 요청된다. 역사적으로 中世大學들의 발전 과정을 보면 自由獲得과 병행했다. 自由는 個人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能力과 비례한다. 自由行使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고 따라서 가치 선택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理性和 知성에 토대한 價値判斷이 있어야 되고, 反省的인 思考와 健全한 批判的인 精神이 따른다. 그것은 內面的인 利己와 싸우고 安逸를 극복해야 한다.

어떠한 自由라도 그 자유를 범할 때 不自由롭지 않고서는 自由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소수의 학생들이 自身の 자유대로 많은 다른 학생들의 자유를 犯할 만큼 자유로와서는 안 된다. 학생이 교수의 연구상의 자유를 犯하거나 教授가 다른 教授의 자유를 犯할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한 사회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外的, 內的 위험으로부터 自由를 수호해야 한다. 즉 自由가 도전당할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기없이 참 自由는 이룩되지 않는다.

오늘날 大學은 自律의 이름 아래 두 가지 危機를 內包하고 있다. 엄격한 理性和 批判精神에 토대하지 않는 少數 學生들의 自由의 亂用과 또 하나는 自由의 이름 아래 창의적인 努力과 責任과 의무에서 면제받아 안일과 타성을 통한 自由에의 도피이다. 이런 의미에서 大學은 學生에게는 知성을 배양하고 教授에게는 自由에의 도전을 위한 유발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大學教育의 위기는 形式과 實質의 乖離에 놓여 있다. 우리는 지난날 實驗大學이란 제도적인 教育改革의 形式을 통해 卒業學點을 引下하고 科目當 學習의 量을 증가시키며, 전공

학점의 減少와 複數專攻 制度 및 균형 교양 등을 설치함으로써 大學教育의 動的인 융통성과 個人의 선택권을 높여 왔다. 그러나 個人 교수의 方法的인 改善과 教育내용의 改革과 실제적인 行政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形式과 實質은 乖離되고 結果적으로 學點引下는 學力の 引下를 초래하는 경향을 낳게 된 것 같다. 學期 制度의 變更으로 正規 16週間의 授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봄, 가을에 걸친, 大學마다 벌어지는 각종의 學生行事, 見學授業, 現地實習 등을 감안할 때 制度的인 形式과 實質的인 內容이 어느 정도 一致하고 있는지는 연구·검토해 보아야겠다.

### Ⅲ. 結 語

變化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大學이 主導勢力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다른 機關이나 企業에 비해서 그 能率이나 改革面에서 뒤지고 있다. 大學의 自律性은 學問研究와 眞理探究에 있는 것이지 安逸과 惰性과 非知性的인 無責任의 도피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大學의 危機는 높은 道德律이 지배하는 一貫된 教育哲學的 理念의 不在와 實利에만 몰두하여 教育의 質은 생각하지 않는 大學의 量的인 팽창주의에 있다. 해방 이후 한국 대학은 그 量的인 側面에서는 대단한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形式은 實質을 수반하지 못하고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大學은 舊態依然하게 옛 身分을 그대로 유지한 채 改革에의 意志를 잃고 教育內容面이나 教育方法面에도 거의 變化가 없이 옛 方式을 답습하고 있다.

이리하여 大學의 위기는 變化와 不安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화나 挑戰이 없는 安逸 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大學으로 하여금 學問의 정열을 밝힐 수 있는 象牙塔으로 昇華시켜 學生들로 하여금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